

내 아이에게 들려주고픈 그림동화

사내들에게 중화책을 만들
어주기 위해 모인 아버지들.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자주
같이 있어 주지 못하는 아이
들에게 아빠의 마음을 담아
주고 싶다”는 이들에게 ‘어
린이날’은 하루의 행사로 끝
날 수 없는 것이다.

91.5.5

‘아버지가 쓰고 그린 그림책’ 강좌

현장 **삶의 문화**

“직장일에 쫓기느라 딸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평소 생각해 온 것들, 딸에게 느끼고 바라는 것들을 그림에 담아 딸아이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회사원 황인구(34)씨는 아직 글을 모르는 세살짜리 딸에게 “밝고 따뜻하고 넓은 어린이 세계, 이를테면 꽃밭이나 들과 같은 것들을 그림동화로 그려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쓰고 그린 그림책’ 강좌 첫날인 지난 1일 저녁 강남구 신사동 강남출판문화센터 지하강당에는 ‘그림책을 쓰고 그릴 아버지’ 15명이 수강생으로 참석했다. 회사원 황인구씨도 이들 가운데 한사람이다. 대체로 빠듯한 직장 일과를 마치고 저녁시간을 내어 이 모임에 온 이들은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 연령층도 다양하고 직업도 갖가지다. 그러나 이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낸 동기는 엇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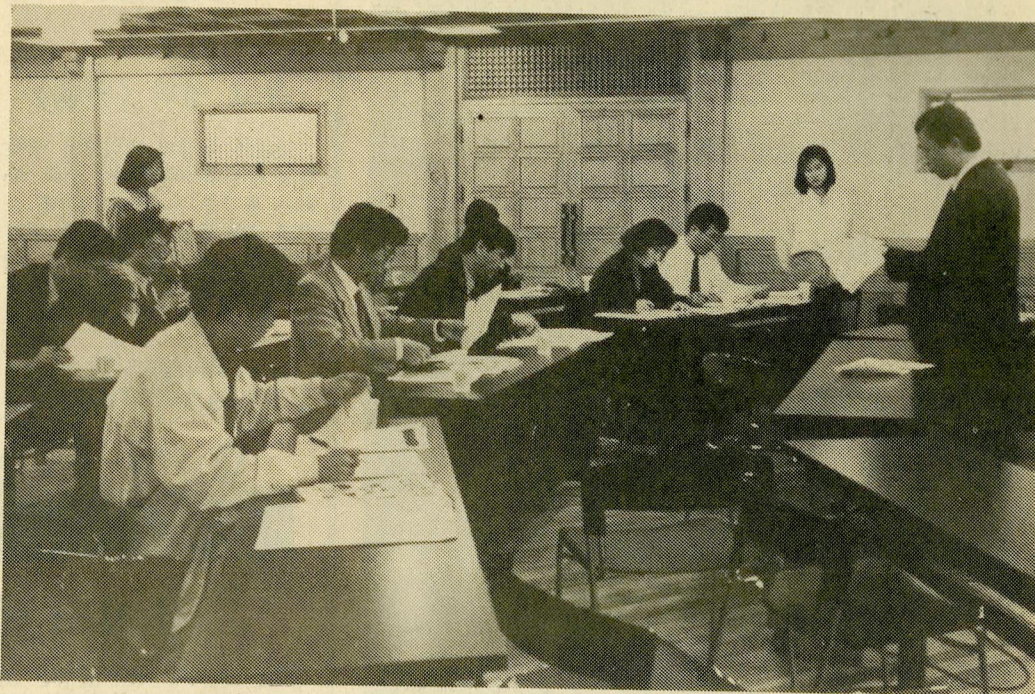
동덕여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인 구동조(43)씨는 “글이나 그림에 재주없는 평범한 아버지”들을 공개모집한 이 아마추어 ‘동화작가’ ‘삽화가’ 모임에서 유일한 전문가인 셈이다.

“적어도 그림으로 치자면 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동안 주로 남을 위해 또는 상품으로 그림을 그렸을 뿐, 내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구씨는 “로봇이나 피기·폭력만 화들로 가득찬 숲에서 심성이 공격적이고 삭막해져가는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건강한 상상력을 길러주는 동화를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김영욱(35)씨는 아내 유덕윤(31)씨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네살짜리 딸을 둔 유씨는 “동화를 통해 아이에게 뭔가 묵직한 교훈을 주기보다는, 담요를 끼고 다니는 버릇이나 엄마 따라 미장원·공중목욕탕에 처음 갔을 때 놀라고 신기해하던 반응 같은 것들을 그대로 그려 되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주로 30·40대 평범한 직장인 15명 수강 일상생활의 솔직함·정성 담겨 기대모아

9월께 책으로 출간...지난해 ‘엄마강좌’에 이어 좋은 반응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에 대한 이들의 각기 조금씩 다른 구상들은 이 강좌가 끝나는 오는 9월께 역시 조금씩 다른 동화책들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한차례씩 모여 토론하고 작업한 결과를 각

각 책으로 출판, 오는 10월에 열릴 ‘서울도서관’의 특별기획코너에 내놓을 예정이다.

‘아버지가 쓰고 그린 그림책’은 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소장 강우현)가 지난해 ‘엄마가 쓰고 그린 그림책’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한 기획이다. ‘엄마...’ 강좌는 지난

해 가을 <금속의 생일잔치> <우석이가 주인이다> <찍찍 짹짹> 등 13권의 동화책으로 열매를 맺었고, 이 책들은 우선 이들 아마추어 동화작가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각별한 선물이 됐다. 그리고 약 5천질이 시중 서점을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도 읽혔다.

동화작가인 강우현 소장은 “아마추어 작가들이 만든 것이어서

과연 누가 사서 읽어줄까 생각했는데 뜻밖에 좋은 반응을 얻었다”면서 “솔직함과 정성 그리고 현실성이 그런 기법의 아마추어적 한계를 거뜬히 뛰어넘은 결과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약먹기 싫어하는 딸에게 ‘몸속에서 나쁜 벌레와 착한 벌레가 싸우는 얘기’를 들려주는 <병원 은 싫어요>, 자전거를 안 타려는 아이에게 모든 물건을 소중히 여기도록 일러주는 <네발자전거 생생이> 등이 지난해 ‘엄마가 쓰고 그린 그림책’들이다.

“대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갖는 기대와 관심이 엄마들과는 결이 다른 만큼 아마 조금 다른 동화책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우현씨는 말했다.

<조선희 기자>